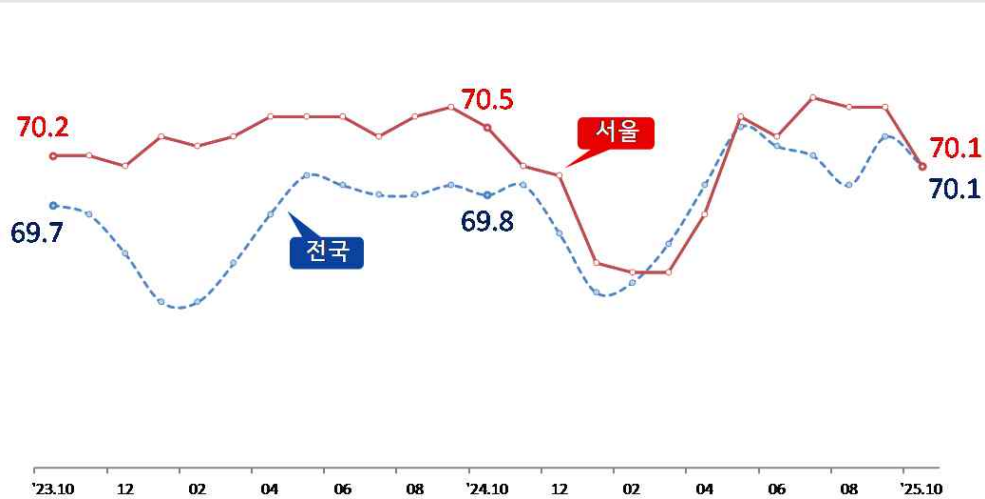


- ▶ 취업자(-2만명)는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
 - 건설, 청년, 남성의 감소폭 확대와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의 감소세 영향
- ▶ 15~64세 고용률(70.1%, -0.4%p)과 고용률(61.9%, -0.1%p) 모두 하락 전환
- ▶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 3천명(+0.4%) 증가

(전년동월대비)

	취업자 증가	취업자 감소
성 별	여성(+4만 5천명)	남성(-6만 5천명)
연 령	60세이상(+5만 8천명), 30대(+6천명)	청년(-6만 1천명), 40대(-1만 4천명), 50대(-8천명)
산 업	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6만명), 도소매·숙박음식업(+3천명)	건설업(-3만 8천명)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-3만 2천명), 제조업(-1만명)
중사상 지 위	자영업자(+1만 7천명), 상용근로자(+8천명), 무급가족종사자(+3천명)	임시근로자(-3만 8천명), 일용근로자(-9천명)
직 업	고용원 有 자영업자: +1만 8천명	고용원 無 자영업자: -1천명
직 업	서비스·판매 종사자(+4만 1천명), 기계조작·조립종사자(+1만 2천명), 기능원(+5천명)	관리자·전문가(-8만 8천명), 단순종사자(-1만 3천명)
취업시간	36시간 미만(+2만 1천명), 일시휴직자(+6천명)	36시간 이상(-4만 6천명)

15~64세 고용률(%) 추이



전국

서울

(전년동월대비)

전체 인구 (주민등록)	5,114만 3천명 · 9만 5천명 감소(0.2%↓)	931만 4천명 (전국의 18.2%) · 3만명 감소(0.3%↓)
15세이상 인구	4,581만 9천명 · 21만 2천명 증가(0.5%↑)	844만 6천명 (전국의 18.4%) · 2만 1천명 감소(0.2%↓)
경제활동 인구	2,969만 8천명 · 17만 3천명 증가(0.6%↑) - 경제활동참가율 64.8%(0.1%p↑) (월) 청년층 47.1%(1.2%p↓) (3분기) 청년층 47.7%(1.1%p↓)	536만 4천명 (전국의 18.1%) · 3만 4천명 감소(0.6%↓) - 경제활동참가율 63.5%(0.3%p↓) (3분기) 청년층 52.2%(0.8%p↓)
취업자	2,904만명 · 19만 3천명 증가(0.7%↑) - 고용률 63.4%(0.1%p↑) - 15~64세 고용률 70.1%(0.3%p↑) (월) 청년층 44.6%(1.0%p↓) (3분기) 청년층 45.3%(1.1%p↓)	522만 8천명 (전국의 18.0%) · 2만명 감소(0.4%↓) - 고용률 61.9%(0.1%p↓) - 15~64세 고용률 70.1%(0.4%p↓) (3분기) 청년층 49.8%(0.8%p↓)
실업자	65만 8천명 · 2만명 감소(2.9%↓) - 실업률 2.2%(0.1%p↓) (월) 청년층 5.3%(0.2%p↓) (3분기) 청년층 5.1%(0.2%p↑)	13만 7천명 (전국의 20.8%) · 1만 4천명 감소(9.4%↓) - 실업률 2.5%(0.3%p↓) (3분기) 청년층 4.7%(0.0%p)
비경제 활동인구	1,612만 1천명 · 3만 8천명 증가(0.2%↑)	308만 2천명 (전국의 19.1%) · 1만 3천명 증가(0.4%↑)

- 경제활동참가율(%)
인천(65.6) > 경기(65.3) > 대전(64.1) > 서울(63.5) > 광주(63.4) > 울산(60.7) > 대구(59.9) = 부산(59.9)
- 15~64세 고용률(%)
경기(70.3) > 서울(70.1) > 인천(69.8) > 부산(68.5) > 대전(68.3) > 광주(67.3) > 울산(66.3) > 대구(65.9)
- 실업률(%)
대구(3.0) > 인천(2.8) > 대전(2.6) = 경기(2.6) > 서울(2.5) > 광주(2.3) > 울산(2.0) > 부산(1.8)
- 3분기 청년(15-29세) 실업률(%)
광주(6.9) > 인천(5.9) > 울산(5.7) > 부산(5.1) = 경기(5.1) > 대구(5.0) > 서울(4.7) > 대전(3.8)

총괄

고용률은 61.9%(-0.1%p)로 6개월만에 감소 전환하고, 전국(63.4%, +0.1%p) 보다 1.5%p 낮음

- 15~64세 고용률은 70.1%로 전년동월대비 0.4%p 하락하며 4개월만에 감소로 전환

- 청년 고용률(3분기)은 49.8%(-0.8%p)로 6분기 연속 하락

실업률은 2.5%(-0.3%p)로 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, 전국 실업률(2.2%, -0.1%p)을 0.3%p 상회

취업자수

취업자(522만 8천명, -2만명)는 건설, 전기·운수·통신업의 감소세와 청년층의 감소폭 확대로 감소 전환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10)24 (11)-13 (12)-12 ('25.1)-94 (2)-98 (3)-108 (4)-72 (5)4 (6)-22 (7)28 (8)29 (9)9 (10)-20

* (전국) 취업자수(+19만 3천명)는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내수 개선세 등으로 도소매, 숙박·음식업, 예술·스포츠 등에서 증가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10)83 (11)123 (12)-52 ('25.1)135 (2)136 (3)193 (4)194 (5)245 (6)183 (7)171 (8)166 (9)312 (10)193

산업별

-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은 증가세 지속하고, 제조업은 감소폭 축소
- 건설업의 감소폭 확대와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의 부진 지속

▶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6만명, +2.7%)은 돌봄수요, 직접일자리 등 사업 효과 지속 영향으로 증가세 지속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10)78 (11)73 (12)111 ('25.1)93 (2)71 (3)75 (4)66 (5)105 (6)95 (7)132 (8)102 (9)71 (10)60

▶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(+3천명, +0.2%)은 소비심리 회복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나 증가폭은 축소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10)-58 (11)-56 (12)-44 ('25.1)-84 (2)-68 (3)-35 (4)-3 (5)4 (6)1 (7)-16 (8)-2 (9)21 (10)3

* 소비자심리지수(CCSI): ('24.12)88.2 ('25.1)91.2 (2)95.2 (3)93.4 (4)93.8 (5)101.8 (6)108.7 (7)110.8 (8)111.4 (9)110.1 (10)109.8

▶ 건설업(-3만 8천명, -11.5%)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취업자 감소폭 확대하며 12개월 연속 감소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10)4 (11)-5 (12)-14 ('25.1)-34 (2)-36 (3)-49 (4)-35 (5)-6 (6)-5 (7)-9 (8)-8 (9)-25 (10)-38

▶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-3만 2천명, -3.1%)은 정보통신분야 기재용 영향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10)71 (11)52 (12)37 ('25.1)38 (2)35 (3)34 (4)50 (5)34 (6)10 (7)9 (8)-15 (9)-36 (10)-32

▶ 제조업(-1만명, -2.3%)은 도심제조업의 부진 등으로 취업자 감소하나 기저효과와 내수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 축소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10)-70 (11)-77 (12)-101 ('25.1)-104 (2)-99 (3)-131 (4)-145 (5)-129 (6)-117 (7)-82 (8)-45 (9)-19 (10)-10

* (전국) 보건·복지(+28만명), 예술·스포츠(+7만명), 도소매(+4만 6천명), 숙박·음식(+2만 2천명) 등의 증가세 지속

건설업(-12만 3천명)은 감소폭 확대, 전문·과학서비스(-2천명)는 56개월만에 감소로 전환, 농림어업, 제조업 등은 감소 지속

연령별

- 청년층(-6만 1천명)과 50대(-8천명)는 감소폭 확대, 40대(-1만 4천명)는 3개월 연속 감소
- 60세 이상(+5만 8천명)과 30대(+6천명)는 증가 지속

* (전국) 청년층(-16만 3천명)과 50대(-1만 9천명)는 감소폭이 확대, 40대(-3만 8천명)는 감소 지속

60세 이상(+33만 4천명)과 30대(+8만명)는 증가세 지속

종사상

• 상용직(+8천명)은 증가 전환과 자영업자(+1만 7천명)의 증가 지속

지위

• 임시직(-3만 8천명)은 감소폭을 확대, 일용직(-9천명)은 감소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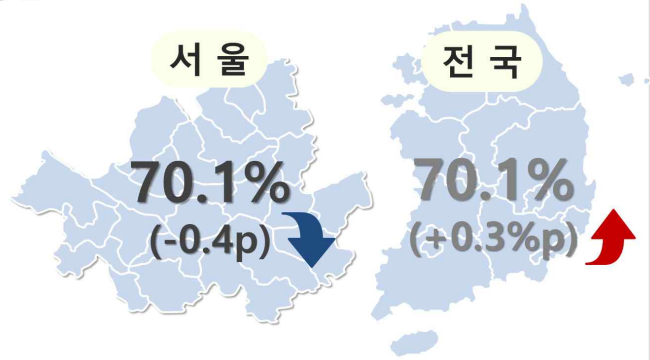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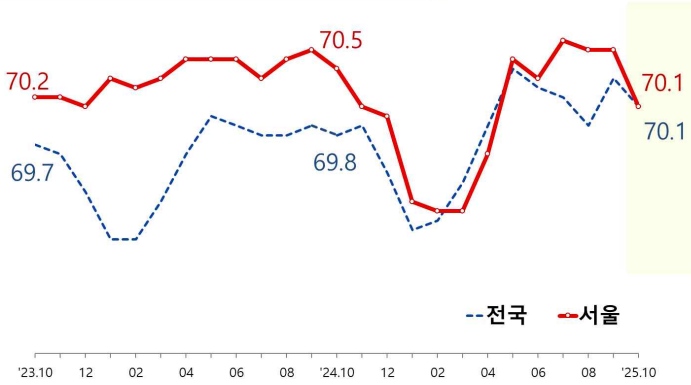
* (전국) 상용직(+28만 6천명)은 증가 지속, 임시직(+7만 9천명)은 증가폭 확대하나 일용직(-5만 5천명)은 감소로 재전환

고용원 有 자영업자(+1만 9천명)는 증가, 고용원 無 자영업자(-11만 7천명) 감소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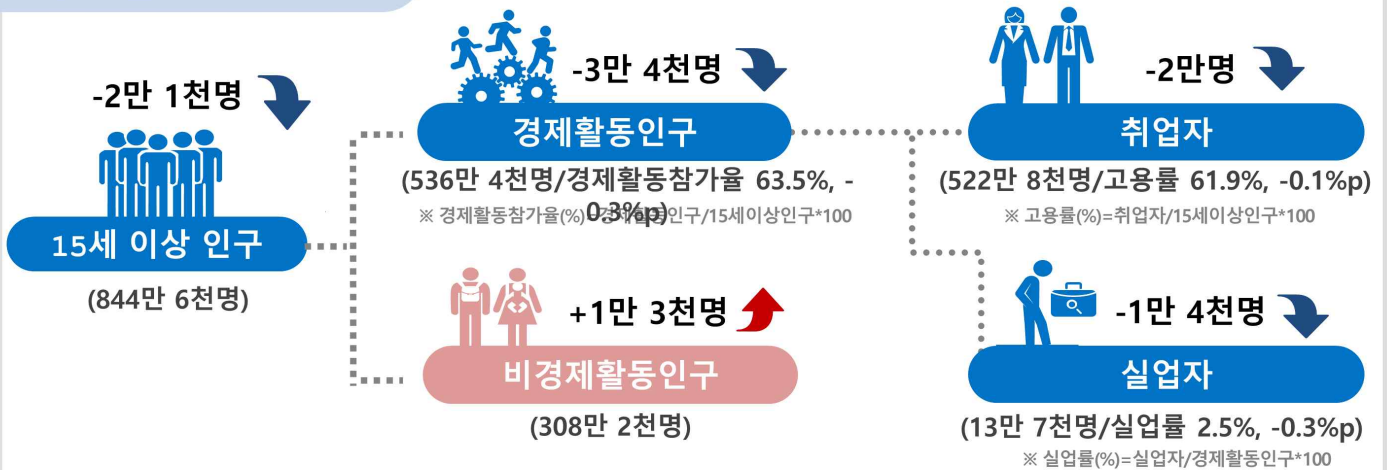


서울지역 고용동향

고용률(15~64세) OECD기준 ※ 전년동월대비 증감



경제활동인구 구조 ※ 15세 이상 기준, 전년동월대비 증감



취업자수 증감 ※ 전년동월대비 증감(률)

